

## REV. 성경 부록 3. 죽음은 죽음

### Appendix 3. The Dead are Dead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완전히 생명이 없으며, 모든 면으로 죽었고 들림 받을 때나 혹은 부활때에 다시 살릴 때 까지 아무 부분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거대한 주제,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많은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부록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그리고 죽음의 단계에 대한 기초 주제를 밝혀 주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 차례

- 머리말
- 단어 집표
- 맨 처음에 ... 그 마귀가 거짓말을 했다
- 그리스도인의 전통 본원... 죽지 않는 영혼
- 성경은 죽은 자들이 죽었다고 가르친다
- 죽음은 생명의 결석이다
- 죽음이 그저 하나님과 분리 되는 것인가?
- 죽은 사람들은 과연 “생명이 없다.”
- 죽음이 “잠자는” 것과 같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죽은 누가 하늘로 올라 갈수 있었는가?
- 현재 누가 하늘에 있는가?
- 성경에서 사람들의 증언에 대한 것들: 그들은 죽었고 그리고 죽어 있다.
- 죽음에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부활 때
-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
-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 있다고 생각 하는 이유 - 유령과 환영
- 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산다고 생각 하는 이유- 죽었다 살아난 경험
- 성경을 신뢰하세요

### 안내

언제 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은 모든 면으로 죽었습니다: 몸, 혼, 그리고 영. 그들이 살아서 하늘 나라 혹은 불 못, 바로 이것을 “지옥” 이라고 잘못 지적함, 이러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 비록 지금 현재 모든 죽은 사람들이 죽어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각 사람들을 들림 받을 때 살리거나 혹은 두 부활 중 하나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살립니다. 그후에 나머지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예수님이 심판 하십니다 (요한복음 5:22-27; 사도행전 17:31; 고린도후서 5:10). 이것을 알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면으로 죽어 있다는 성경 예언을 깨닫는 것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죽은 자들이 참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압으로:

- 삶의 값어치와 죽음이 원수라고 (고린도전서 15:26)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해 줍니다. 만일 혼이 죽지 않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로 간다면, 죽음이 결국은 구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와에게 말한, 네가 정년 죽지 아니 하리라고 한 거짓말을 드러냅니다(창세기 2:17 을 비교해서 창세기 3:4)
-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적인 귀신들이므로 초혼 자 - 곧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신다고 하신 말씀을 드러내 줍니다 (신명기 18:9-14).
- 사람들로 마귀가 죽은 사람 흉내를 내어 나타나서 충고를 주는 것과 “영적 인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 줍니다.
- 우리로 성경에서 말하는 Sheol-무덤 그리고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씀들을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믿고 죽은 가족들과 다시 만난다는 믿음을 돌려서, 주님이 오실 때를 사모하게 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재 건설 하신다는 소망을 확대 시켜 줍니다.
- 성경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7; 데살로니가전서 2:19; 3:13; 5:23; 데살로니가후서 2:1; 디모데전서 6:14; 디모데후서 4:8; 야고보서 5:7, 8; 요한계시록 22:12, 20)

## 단어 집표

만일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려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어야 됩니다

. 안타깝게도, 많은 성경적 단어들 Hades-헤이디스 혹은 Gehenna-거헤나 같은 말들을 잘 못 알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반드시 성서의 설명을 보여서 깨닫게 해야 되겠습니다.

- **“Dead-죽은, Death-죽음.”** “죽은” 이 뜻은 “생명이 없는,”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전통적인 가르침 “immortal soul-죽지 않는 혼, 혹은 영혼” 이라는 말로 비틀어 놓아서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죽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부록에서 대강 내놓은 것은 언제든지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과연 모든 면으로 “생명이 없음”니다.
- **“Gehenna-지옥.”** 단어 “Gehenna-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 후에 불 못에 던지는 데에다 사용 했습니다.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불 못에서 소멸 됩니다. [Gehenna-지옥에 대한 더 세밀한 설명이 REV. 성경 마태복음 5:22 절 commentary-설명서에 있습니다 “Gehenna-지옥.”]
- **“Hades-음부.”** (발음이 hay-dees[헤이-디스]). 비록 영어 구어로 “hades-헤이디스” 라고 하지만 hell-지옥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sheol-무덤*, 이라는 말과 동등하고, 죽어 있다는 것을 단언 합니다. 이것을 REV. 성경에 “the grave-무덤”이라고 합니다. [Hades-헤이디스 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REV. 성경 요한계시록 20:13 “the grave-무덤”에 대한 commentary-설명을 보세요]
- **“Hell-지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Hell-지옥”이 불 타는 뜨거운 곳인데 바로 그곳에 마귀와 그의 악령이 살고 그리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영혼이 그 곳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이 “hell-지옥” 이라는 말이 영어성경 특히 오래된 번역에는 혼동될 수 있습니다. King James-킹 제임스 번역에, 네가지 다른 단어들을 모두 “hell-헤어[지옥]” 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단어들 이: *Sheol-새오*, *Gehenna-거헤나*, *Hades-헤이디*, 그리고 *Tartarus-탈탈어스* 입니다. 이 보다 더한 것은, 이 “hell-헤어[지옥]이라는 말이 사실 관계 되는 것에 전여 틀린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성경의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hell-헤어[지옥]”이라는 말을 REV. 성경에 사용하지 안 했지만, 이것을 부록에는 사용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 생각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 **“Sheol-새오[무덤].”** Sheol-새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Sheol-새오”에 들어 가는데, 그들이 죽은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떠한 형체이든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Sheol-새오 에 대한 것을 더 알고 싶으면 REV. 성경 요한계시록 20:13 “the grave-무덤”에 대한 설명서를 보세요].

- **“Soul-혼.”** 이 “Soul-혼”이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사람 혹은 육의 생기를 주어서 자연적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몸이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immortal soul-영혼”이라는 말과 “immortal-영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절대로 없으며, 이 말이 그리스 신학입니다. [이 soul-혼 이라는 말을 더 알고 싶으면 REV.성경 Appendix-부록 16 “Usages of Soul-혼이라는 말의 사용.”]을 보세요.
- **“Spirit-영.”** 이 “spirit-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말을 “soul-혼”에다 사용한 이유는 이것이 영과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와 그리스 어에 “spirit-영”이라는 말 뜻을 여러가지로 번역 했습니다 [이 “spirit-영”이라는 말에 대한 것을 더 알고 싶으면 REV.성경 Appendix-부록 15 “Usages of ‘spirit’- ‘영’의 말을 사용.”]을 보세요.

## 맨 처음에...마귀의 거짓말

사람이 죽으면 전적으로 죽지 않는 다는 믿음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거짓말 한 때부터 서 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창세기 2:17) 하셨는데, 마귀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 (창세기 3:4)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이 틀렸고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만일 여러 그리스도인의 교에서 가르침과 같이 “immortal soul-영혼,” 이 있다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죽었으나 “그들이” 비 물질적인 상태로 하늘 나라에서나 혹은 지옥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언제든지 사람이 “죽으면,” 단지 몸은 죽지만 사람에 혼 혹은 영은 살아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사람이 죽은 후에 사는 것에 대하여 공부해 보면,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혼은 계속 산다는 것을 마귀와 악령들이 선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가지 이유는 사람이 사는 값어치를 흐리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다른 형태로 사는 것이 사실 이라면, 결국엔 죽는 것이 별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나쁩니다! 살아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며, 그리고 마귀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는 우리로 이세상에서 사는 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싼 값으로 내 주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이 원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26).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죽음이 원수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사실 혼으로 혹은 영이 살고 있다는, 마귀가 선전하고 있는 것에 또 한가지 이유는 만일 죽은 혼이나 영이 살아 있다면, 그들이[마귀와 악령]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악령들이 죽은 사람들을 흥내 내는 일을 매우 잘하여 여러가지 형체로 나타나며, 그리고 그들이 그 나타남을 사용하며, 그리고 그와 비슷한 전술로 사실이 아닌 것을 먹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해로운 정보 까지 줍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8:11 에 명한 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까지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어 있으므로, 단지 악령들이 죽은 사람들의 흥내를 내어 누구든지 죽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충고를 구하면 그들이 아니라 마귀와 악령들이 늘 대답해 줍니다. 사실은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 사람과 대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전통 본원... 죽지 않는 영혼**

사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죽음이 사는 것으로 믿게 성공한 길들 중 한 길은 “immortal soul-영혼”을 믿게 한 선전을 통해서입니다. “immortal soul-영혼”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면, 사람의 혼은 죽지 않으므로 사람이 죽은 후에 계속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immortal soul-영혼”이라는 단어 조합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성경은 혼을 죽일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cp. 마태복음 10:28).
- 죽은 사람들의 혼이 지금 하늘에 있거나 지옥에 있지 않으며, 그들은 죽었으며, 생명이 없고 “in Sheol-무덤 안에” 있습니다 (욥기 14:13; 시편 6:5; 31:17; 전도서 9:10)

이 부록에서는 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통 역사시작을 우리가 오직 단축한 것을 드리지만, 이 전통의 시작에 주요한 확실한 것은 그리스에서 났습니다. 역사가들이 내놓은 문서에 사람들이 Sheol-무덤이 살아있는 것으로 믿기 시작한 것이 적어도 일찍 바벨론 포로 (c. 주전 586 년)이며,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인의 영향 곧 그들의

가르친 믿음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다음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졌습니다. 그리스인 들이 “immortal soul-영혼[죽지 않는 혼]”을 믿었고 그리고 아무도 사실로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인의 신화학을 따라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이 그 몸을 떠나서 산다고 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고대 그리스인의 신 화학을 믿는 것입니다.

주전 332 년에, Alexander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많은 유 대인의 인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말을 하기 시작 했으며, 하다못해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그랬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 하여, 혼이 죽지 않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었으며, 그때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번역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Septuagint-쌩투어진[칠십인역]이며,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사는 유대 번역가들이 번역가들의 결정으로 *Sheol-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Hades-음부[지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Septuagint-쌩투어진[칠십인역]에서는 죽은 사람이 *Hades-음부*에 있다고 말 하며, 그리스인 들의 믿음을 따라 혼들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Septuagint-쌩투어진[칠 십인 역], 이것이 그리스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는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까지 포함하여, 사람이 죽으면 혼은 살아있다는 믿음의 무척 많은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죽음 후 얼마 못되어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들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에 그들의 신화학을 가지고 그리스도 교에 들어 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교에 새로 들어온 그리스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곧 혼이 살아있는 믿음을 원조해 주는 Septuagint-쌩투어진[칠십인역]을 읽고 그리고 사실 신약성경이 기록 되었고, 그 단어 *Hades-음부*를 죽어 있는 데에다 그리스어 구약 성경과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인 들과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차지해서 “immortal soul-영혼[죽지 않는 혼]”은 몸이 죽은 후에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 전통이 되었으며, 사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날에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죽었다고 가르친다.**

많은 구절들이 죽은 자들이 현재 살아있지 않다고 보여주는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부

활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선택한 구절들 소개합니다:

**욥기 7: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찌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안 했으며, 그 대신, 그가 “있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0:20-22:** <sup>20</sup>“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으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sup>21</sup>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서서 <sup>22</sup>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안 했습니다. 그가 “흑암”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14:12:**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할 때까지, 부활이 없습니다 [cp. 이사야 65:17].

**시편 6: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Sheol-새오[무덤]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으면 기억함도 없고 혹은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in Sheol-새오에에 있으며,’ 그것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진토”가 idiom-관용구로 무덤과 죽음을 의미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시편 49: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언제든지 죽고 사는 데에 의하면, 사람이 짐승과 같이—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49:15:**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soul-영혼[혼]을 Sheol-새오-음부 [죽음]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셀라).” [언제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Sheol-새오에,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일으켜서 심판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피 값으로 죽음에서 석방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88:11, 12:**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중에서 주의 기사와 잇음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죽음을 “잇음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죽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4:17:**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죽음을 “land of silence(조용한 땅)-적막” 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아무런 행함이 없고 그리고 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17:**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전도서 9:4-6:** “<sup>4</sup>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 이니라 <sup>5</sup>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sup>6</sup>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 진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름”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악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올때까지 죽은 사람들을 아직 살리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10:**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찌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Sheol(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사야 26: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 때 까지 티끌-dust(먼지)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18:** “음부-Sheol(무덤)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한 소망을 바라지 못하되...” [죽음은 하나님을 찬양 하지 못하며 소망을-hope 바라지도 못합니다].

**에스겔 37: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사람들”이 그저 몸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현재 죽은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그저 죽은 시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12: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 이 죽었고 부활 때까지 아무런 의식이 없으며, 그 부활 때에 그의 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28, 29:** “<sup>28</sup>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sup>29</sup>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때에는, 현재 죽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 **죽음은 삶의 결석이다**

죽음은 삶의 결석입니다. 언제이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 그들은 죽은 것이며, 이 뜻은 그저 몸만 죽은 것이 아니며, 사람전체가 모든 면으로 죽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그가 정녕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17).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안 했으면,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 했으므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만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 것을 금지 하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몸으로 영원히 살지만, 만일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아직도 사는데 (하늘)에 좋은 곳 아니면 (지옥)나쁜 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이 없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이 몸만 죽고 혼은 나와서 어딘가에 살아 있다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 **죽음은 그저 하나님과 separation-분리되는 것인가?**

가끔씩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데 곧 “죽음”의 뜻은 “separation-분리,” 그리고 죽은 자들이 “lifeless-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 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서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첫째는, “죽음”이라는 말에다가 그저 separation-분리라고하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 히브리어나 혹은 그리스어에 잘못입니다. “죽음”이라

는 뜻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separation-분리의 관점이 있는 것은 언제 고 사람이 죽으면, 진정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며 삶의 모든 면으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뜻이 “분리가” 아닙니다. 그 대신, 언제 고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사실의 실질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생명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라고 합니다 (시편 115:17).

성경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둘 다 사람의 “죽음”이 동물의 죽음과 같다고 사용합니다. 사람이 “죽으면”거기에는 “separation-분리”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으며, 그리고 동물이 죽으면 그 뜻이 “죽음”이라고 다르게 한 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이 뜻이 “separation-분리”이고 동물에게는 현실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의 바탕이 없으며; 죽음은 이 모든 동물에 동일합니다 (시편 49:12; 전도서 3:18-21). “죽음”은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 **죽은 사람들은 과연 “생명이 없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말 그대로 죽은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9:5; 시편 146:4). 사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 진지 오래니”라고 합니다 (전도서 9:6). 그러므로, 죽음을 “잊음의 땅”이라고 합니다 (시편 88:12). 산 사람은 소망이 있어도 죽은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이니” 라고 합니다 (전도서 9:4). 죽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고 합니다 (전도서 9:10). 믿은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그가 죽으면 그는 더이상 하나님을 찬양 할 수 없고 그를 증명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0:9; 88:10; 115:17; 이사야 38:18). 죽은 사람은 consciousness-인식이 없고 그 몸이 썩어서 없어지며, 그럼으로 옳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하나님]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 찌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 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기 7:21).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 같으나 (시편 49:12-14), 하나님이 사람은 죽음에서 일으키신 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이유가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지 안 했으면 왜 부활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구절, 즉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때,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soul-혼” 혹은 “spirit-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 soul-혼은 (어떤 때는 “spirit-영”이라고 함) 사람이 죽으면 몸을 떠나서 홀로 살 수 없으며, 이것이 귀신 같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위해 창조하신 생명력입니다. 몸은 그것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 soul-혼이 필요하지만, 몸이 죽으면, soul-혼, 곧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soul-혼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면, Appendix-부록 16: “Us ages of ‘Sou l’-‘혼’ 단어의 사용”을 보세요).

“Spirit-영”을 이해하는 것이 “혼”을 이해하는 것 보다 더 복잡한 것은 “spirit-영”을 “soul-혼”으로 사용하며 (이유는 “soul-혼”이 일종의 spirit-영이기 때문입니다) “혼”과 그리스도인에게 태어나는 gift-은사 영[성령]의 모두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음은: 하나님이 “spirit-영”이 사람 몸이 없이 살 수 있게 창조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유령-같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이고, the gift of spirit-은사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spirit-영”이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그 믿은 자가 죽으면, spi rit-영이 단순히 사라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Spirit-영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전에 비 물질적인 유령-같은 것으로 살아있었지 아니 하였듯이, 그 믿은 자가 죽은 후에도 비 물질적인 유령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 갑니다”. (“spirit-영”에 대하여 더 아시고 싶으시면 Appendix-부록 “Usages of ‘Spirit’-‘영’의 사 용”을 보세요).

### 죽음이 “잠자는” 것과 같다

“잠”은 성서의 일반적인 euphemism-완곡 어법 이고 죽은 사람의 metaphor-비유이며,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비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12:2; 요한복음 11:11-14; 사도행전 7:60; 13:36; 고린도전서 7:39, 11:30; 15:6, 18:20; 데살로니가전서 4:13). 예를 들어, 시편 13:3 에서 말씀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 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 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욥 이 말하기를,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 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 사 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기 14:10, 12).

신자들은 죽음속에서 깊은 잠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죽으면, “잠이 들면,” 그들이 다음에 보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신자들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시간적 관점에서는 신자들이 죽어서 눈 감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죽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순간 죽음의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후 부활 때까지 지나간 시간을 모릅니다. 거기엔 netherworld-네더 월드[종교에서 지 어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가 없고 purgatory-퍼가토리 천주교에서 지어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와 같은 것들이 없으며, 그럼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죽으면 바로 부활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의 경험이 산 사람들의 경험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의 경험은, 친구나 가족들이 땅에서 살았는데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깊이 잠들었으므로 다시는 생활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한편 산 사람은 매일, 매일, 생활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의 경험은 그가 죽어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서 보면 순간적으로 부활이 온 것으로 느낍니다. 죽은 사람은 시간이나 살아있는 사람의 투쟁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에 눈을 감는 것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수천년 동안 죽었을 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죽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 많아 병들어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어서 눈을 감았는데 그에게는 순간적으로 깨어나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인 새 몸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빌립보서 3:21). 사람의 늙은 몸은 썩을 것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몸으로 죽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며, 그들이 “약한 몸으로” 죽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42 - 44). 이러한 약속들이 있으므로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모로 잠자는 것과 같으며,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음을 “잠자는”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죽음을 “잠 잔”다고 하는 데도, 이 metaphor-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들과 같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죽음과 잠자는 것이 비슷하지만, 여기에 또한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을 밝히겠습니다.

1. 죽음과 잠자는 것 둘 다 압도적인 힘입니다.사람들이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들이 피곤해서 잠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서 자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은 잠이 그들을 이깁니다.
2. 죽음과 깊은 잠이 시간 가는 것에 인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 지 모릅니다
3.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생산적인 아무런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4. 죽은 자와 잠자는 자 둘 다 다른 사람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언제이고 사람이 잠자다가 깨어날 때 똑같은 사람으로 깨어납니다. 그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 죽고 그가 부활하면 그가 똑 같은 사람입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누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한 것을 다 기억 합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예임은 그가 부활 하신 후로도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전과 똑같은 사람이었으며, 그는 단지 다른 몸과 더 많은 능력을 받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였다는 것을 알고 그가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알아보았고 그럼으로 누구든지 죽음에서 부활 한 자 들도 이러한 것들을 알 것입니다.
5. 죽음과 잠자는 것 둘 다 끝이 납니다. 사람의 죽음의 상태는 부활 때 끝나며, 잠은 깨어날 때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과 잠자는 것에 비슷한 점을 보았으니 이것에 차이 점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면, 사람의 몸이 계속 작용하며, 그리고 그들의 몸으로 잘 쉬고 깨어납니다. 반면에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몸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혼과 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그들을 일으킬 때까지 죽은 채로 있습니다.

죽음의 잠을 어떤 때는 성경에서 “soul sleep-혼이 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soul-혼”이 “자는”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 자는 것을 말합니다. “soul sleep-혼이 잔다”는 문단이 성경에는 없는데 (1509-1564)경에 John Calvin-잔 칼빈 이라는 분이 이 말을 유행시켜 놓았으며, 그가 이 말을 사용해서 믿음을 경멸적으로 비난 했습니다. Calvin-칼빈 은 사람이 죽은 후에 soul-혼은 계속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soul sleep-잠자는 혼”이라는 경멸적이 자연 작용의 말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몸이 죽으면 혼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보통 다른 믿음들 “materialism-유물론,” “conditio

nal immortality-조건부 불멸,” 같은 것들을 의미 하고, 그리고 1970 년 경에, “Christian Mortalism-그리스인 사망주의” 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사회에 어떤 유명한 분들, 그 중에 William Tyndale-윌리엄 틴데오, John Wycliffe-잔 와이클립, 그리고 Martin Luther-말틴 루델 분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안 했습니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누가 하늘로 올라 갈수 있었는가?**

자주 가르친 것에 의하면, 에녹,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 수 없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하늘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정입니다. 비록 열왕기하 2:11 에서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 [heaven-하늘]” 하였다고 했는데, 회리 바람이 하나님에 하늘 까지 올라갈 수 없으며;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들려 “승천[heaven-하늘]”이라는 하늘이 공중을 말하며, “haven-하늘 ‘공중’”의 새(욥기 12:7) 혹은 “heaven-하늘 ‘공중’” 에서 내리는 비(신명기 11:11), 이와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heaven-하늘”을 하나님에 하늘과 우리 위의 공중을 모두 heaven-하늘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보탬 포인트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값기 전에는 아무도—아무도—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죄값을 치루기 전에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값을 치루기 전에 아무든지 다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칭하 하시지 않으십니다. 간단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며, 그럼으로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 간 자들이 없으며, 그리고 여기에는 에녹, 모세, 그리고 에리야가 포함되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없는 것은 아직 부활 때가 오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배운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purgatory-연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적 사실은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Sheol-새오[무덤]”에서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 때 살림을 받을 때까지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거나 혹은 불 못에 던짐을 받아 결국은 소멸 됩니다

(요한계시록 20:11-15).

## 현재 누가 하늘에 있는가?

비록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을 특별히 말해 준 수가 무척 많지만, 그 중에 한사람도 하늘에 갔다는 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도 예수님 외에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13 절,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인데 (REV. 성경 요한복음 3:13 에 설명서를 보세요), 여기에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REV. 성경: “And no one has gone up to heaven, but he who came down from heaven,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요한복음이 늦어도 주 후 50 년에 기록 되었다고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요한이 주 후 70 년과 주 후 100 년 사이에 기록했다는 것을 보조해 줍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무렵에 일찍 그리스도인이 된 후 죽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스데반과 사도 야고보도 여기에 포함해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30; 15:6). 확실히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면 요한복음 3:13 절에서 이것을 말 했어야 되고, 예수님 외에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지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13 절에서 예수님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한 이유가 누구든지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직도 죽어 있고 예수님의 강림이든지 혹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한사람도 그들이 죽으면 하늘로 갔다고 확실한 말이 없으며, 무덤으로 가는 것 외에 지옥, 혹은 어느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들 수백, 아니 수 천이 넘는데, 현재 까지 그 중에 한 사람도 죽으면 하늘이나 혹은 불 못으로 갔다는 말이 없는 그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이러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을 무척 강하게 증거하며, 그 대신 언제 고 사람들이 죽으면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sheol-새오[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 때에 살릴 때까지 생명이 없으며, 그리고 그때에 각자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혹은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증언이 그들이 죽었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 성경에서 사람들의 증언에 대한 것들: 그들은 죽었고 죽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들이 살다가 결국에 대한 가장 흔히 하는 말은 그들이 그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더이상 말이 없으며, 그들이 죽은 후에 혹은 그들의 “soul-혼” 혹은 “spirit-영”이 하늘로나 혹은 지옥 또한 다른 어느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산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한구절도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거나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 없고, 그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합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그저 “죽었다”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전통 대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느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나사로에 대한 비유 그리고 부자, 이것이 비유이고 이것을 REV.성경 누가복음 16:19 설명서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전통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늘로 간 사람들 얼마라도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때에 그들을 죽음에서 살릴 때까지 그의 삶의 끝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meeting house-만나는[정한 집” (욥기 3:11-19):** REV.성경 욥기 30:23 에서 모든 산 사람들이 죽으면 만나는 집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Sheol-새오[무덤]로 가며, 그리고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럼으로 죽음을 옹계 형용한 것이 모두 만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이와 비슷한 말을 욥기 3:11-19 에서 했습니다. 욥기 3 장에서, 욥이 그의 자손들을 다 잃고, 종들, 그리고 재산, 그리고 그의 몸에 독종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할 때입니다. 그는 죽기를 원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 안에서 쉬고 있으며, 평안한 죽음의 잠을 잔다고 형용 합니다. 욥이 모든 죽은 자들을 죽음에 모아서라고 하는 말이: 임금, counselors-상담사[의사]들, 감독들, 태에서 죽어 나온 아기들, 그 악한 자들, 곤비한 자들, 갇힌 자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작은 자나 큰 자나 일 반으로 있고” 라고 했습니다. 만일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으면 욥의 말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어떤 죽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면, 욥이 말한 것이 맞지 않으며, 많은 악한 왕들과 감독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물론 “악 한”자들이 잠자고 그리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 불 못에서 고통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죽으면 죽어 있으며,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는 종종 그 이상 더 다른 말을 보태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아담 “죽었음,” 셋 “죽었음,” 에노스 “죽었음,” 게난 “죽었음,” 마할렐렐 “죽었음,” 야렛 “죽었음,” 에녹 죽었음 (히브리서 11:13); 므두셀라 “죽었음,” 그리고 라멕 “죽었음” (창세기 5:5-31). 이 목록은 성경 전체에서 빼면 몇 곱절로 늘릴 수 있습니다만,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간단하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구절도 “아담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없는 것은 그렇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죽었고 그리고 죽어 있습니다.

**욥:** 욥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많이 말했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곧 하늘과 같은 혹은 나쁜 곳으로 곧 지옥과 같은 곳으로 간다고 가리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대신, 그가 죽는 것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가 죽음에 “누워서” 잔다고 말합니다 (욥기 3:13). 그가 죽으면, “내가 있지 아니하리 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욥은 죽었고 살아있는 존재로서는 “그가 없음”니다. 더 나아가 Sheol-새오 [무덤]으로 가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욥기 7:8-9), 그리고 Sheol-새오[무덤]은 그가 있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7:13). 또한 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데려 가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30:23). 더 나가, 욥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죽음에서 모인다고 말합니다 (욥기 3:13-19; 14:12).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면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 성경은 그저 말하기를, “기한이 차서 욥이 죽었더라” 라고 만 합니다. 지금 욥은 그가 말한 곳에 있으며, “Sheol-새오[무덤]” 죽은 상태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토록 위대한 분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날에는 성경에서는 그저 그가 죽었고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 가매” 라고 합니다 (창세기 25:8). 이 문단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말은 그가 죽어서 죽은 자기 조상들과 같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이며, 그리고 이 구절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공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gathered to his people-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말은 성경은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죽을 때 그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한 결같이

말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이 “열조”에게로 가는데, 그들이 Ya hweh-야워이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2).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심판 날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열조가 어데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열조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 곳은 오직 한군데 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곳이 Sheol-새오, 죽은 상태에 있는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딘가에 살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과 같이 죽었으며, 이 모두가 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athered to his people-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문구는, 가족들의 무덤 혹은 조상들의 묘지들 같은 것들에 관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죽으니까 “gathered to his people-그 열조에게로 돌아 갔더라” 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된 곳에 장사 했습니다 (창세기 49:29-33). 또한 “gathered to his fathers-그 아비에[한글 성경에는 열조라고 함] 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한 문단을 “gathered to his people-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말과 같게 죽는 것에다 사용 했습니다 (사사기 2:10; 열왕기하 22:20; 역대하 34:28).

**Jacob:** 야곱이 자기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슬퍼하며 Sheol-무덤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7:35). 그러므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Sheol-무덤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자기도 죽으면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늘로 가든지 다른 아무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음으로 간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고 나와서 물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죽음 이후에 살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가 잠들 때 “나”를 물어버린다고 말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gathered to his people-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33). 그후에, 요셉이 죽었을 때, 성경은 단순히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50:26; 출애굽기 1:6).v

**히스기야:** 위대한 유대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하늘이나 좋은 곳에 간다는 것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Sheol-새오[무덤]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주 [하나님]께서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 리이다”고 했습니다 (38:10-13). 그후,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은 후에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Sheol-새오[무덤]이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 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한 소망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라고 합니다 (이사야 38:17:19). 히스기야 는 만일 자기가 죽으면 죽어 있는 상태; Sheol-새오 [무덤]로 간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좋은 곳으로 간다는 허무한 상상을 하지 안 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oblivion-잊음”이라고 불렀고, 그가 죽지 않고 치료를 받아 살았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성경은 그가 “그의 열조와 함께 잔다”고만 합니다 (열왕기하 20:21; 역대하 32:33).

**다니엘:** 다니엘서의 맨 끝에 기록된 구절에 천사가 다니엘의 죽음에 관한 것과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13).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가 하늘로 간다 거나 혹은 어느 다른 곳으로 간다고 말해주지 안 했으며, 그저 “쉬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죽음 안에서 쉰다는 말과 관계됩니다 (욥기 3:13, 17).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14). 아무도—예수님도, 마르다, 혹은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사로가 좋은 곳에 있다 거나 어데인가 살아있다고 지적인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고 그가 부활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 다는 간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1:3 에 대한 성명서를 보세요). 하지만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까지, 그때 그는 다시 성전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여러 해가 지나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바지막이요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계 1:17-18;비교 계 2:8). 예수께서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 있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실제로 죽지 않으셨고, 다만 그의 몸만 죽었다면 말이 안되고, 심지어 거짓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는 죽었노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었다”는 말의 모든 의미로 죽으셨지만, 지금은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 죽음에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부활

정통의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고 soul-혼(혹은 “spirit-영”)은 계속 살고 그리고 하늘로나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그저 몸만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은 몸, soul-혼, 그리고 spirit-영, 이 모든 것들이 죽으며, 그리고 어떤 형태나 장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 때에, 사람이, 그저 육체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은 완전히 죽기때문에 고린도전서 15:18 에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이 “perished-씩었을[망하였을]”것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사람들의 죽음이 끝나고 다시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사람에 “몸”만 썩어버린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썩어버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활이 없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할 이유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죽어 있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위해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야 만 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든지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많은 구절들이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26:19 은 땅이 죽은 자를 낳는 것에 대해 말 합니다. (NIV. 영어성경에는 earth will giving birth to her dead-땅이 그의 죽은 자를 낳으리 로 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 12:2 절에서는 지금 땅의 티끌속에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4 절에서는 첫 부활을 말하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서” 라고 합니다. 시편 49:15 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무덤[영어번역은 grave-무덤] 의 권세에서 구속 하신다고 합니다. 에스겔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저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에스겔 37:9-14).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 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8, 29). 부활에 오직 “몸”만 일어나서 그 때에 혼을 만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요한]에 미래의 환상, 사도요한이 두번째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본 것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무덤-grave]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13)라고 합니다. 요한이 본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나 혹은 지옥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며, 그들이 무덤에서 그리고 바다—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었고 그들의 시체를 찾지 못한 사람들—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주요한 부활 시행이 세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Rapture-휴거 [하늘로 들어 올림] 때, 첫 부활, 그리고 두번째 부활입니다. 들림이 두 부활 전에 시행되며, 그리고 첫번째 부활 후 1,000 년 간격으로 두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4-7).

Rapture-휴거 [하늘로 들어 올림] 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 되고 그럼으로 이것을 구약 성경 에서와 네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Rapture-휴거 [하늘로 들어 올림] 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려 들어올려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첫 부활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19:11-20:5), 그리고 이것을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5-6),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29),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누가복음 14:14; 사도행전 24:15)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부활에는, 아담 때부터 믿고 죽은 모든 의로운 사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들림 받은 후부터 아마겟돈 전쟁 직전 까지 믿고 죽은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입 안 한 이유는 그들은 이미 들림 받아서 주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1,000 년 후에 둘째 부활 인데, 이 부활을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29)이라고 하고, 또 “악인의 부활” (사도행전 24:15)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의한 자로 판결 받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부활을 요한계시록 20:11-15 절에서 형용해 줍니다.

이 부록의 목적은, Rapture-휴거 [하늘로 들어 올림]을 아는 중요한 것, 부활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 그들이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soul-혼은 내내 어느곳에서 살고 있다가 몸을 일으키면 그때 다시 합친다고 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육체적인 몸으로 나와서 “영”으로 부활 하지 않고, 이것이 산 몸들이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욥기 19:25-27; 시편 71:20; 이사야 26:19; 에스겔 37:12-14; 다니엘 12:2; 호세야 13:14; 마태복음 12:42; 요한복음 5:28-

29; 사도 행전 24:15; 고린도전서 15:20-22, 42-49, 52; 데살로니가전서 4:17; 요한계시록 20:4-5,12-14).v

## 부활 후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 형태로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를 일으키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Rapture-휴거 [하늘로 들어 올림] 때 일으키고 혹은 첫째 부활 혹은 둘째 부활에 일으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the Day of Judgement-그 심판 날”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15; 11:22; 12:36; 베드로후서 2:9; 요한일서 4:17).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는 종류의 큰 부분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똑같은 기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Rapture-하늘로 들림 받음 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다음에 첫째 부활 때 (요한계시록 20:4-6), 다음엔 불의한 자들, 여기에 천년 왕국때에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 20:11-15). 글자 그대로 “Day of Judgment-심판의 날”이 각각 사람들의 분류대로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면 그들을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보상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판단을 받아 그들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느냐 혹은 그들이 정죄를 받아 불 못으로 들어가느냐 입니다 (요한계시록 20:15).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을 따라서는, 그들이 죽으면 바로 하늘로 가거나 혹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판단을 각자 죽을 때 마다 받는 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늘로” 가느냐 혹은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죽으면 이미 판단을 받아 사는 것과 죽는 것에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그가 죽을 때 판단을 받는다면, 매일 같이 수천명이 죽으므로 매일 같이 수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러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그룹 사람들 마다 한날을 정해 놓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판단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덤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일을 행한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일을 행한자는 심판[condemnation-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8-29).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들이 무덤속에 있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불러 나오게 해서 그때에 판단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심판을 받

는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활 때에 죽음에서 살린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관해 말씀하실 때, 미래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말씀에,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러니와, [behold-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러니와, [behold-보라], 솔로몬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41-42).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니스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Sheba-시바의 왕)이 죽은 지가 수백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안 했으며—그 일이 심판 때에 실행 될 것입니다. 한층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대, “이 세대가,” 머지않아 죽을 것이나, 그들 역시도 부활해서 심판 날 그때 까지 심판을 받지 안을 것입니다. 그 때에는 모두 부활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날이 미래라고 말해 줍니다. 여기에서 이 현재 악한 세대가 끝이 난다고 하며, 이것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18). 지금 현재까지는 죽은 사람들이 땅속에 있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데, 어떤 정한 “심판 날”이 미래에 오며,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라고 한 그 때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날에 대한 생각에 웃고 있습니다만, 그 심판날이 정령 올 것이며, 성경이 이것을 보증 합니다.

###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유령과 환영**

많은 그리스도 인들이 왜 죽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 있지 않다고 믿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가끔씩 “죽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apparition-환상” 혹은 “ghosts-유령[귀신]”을 encounters-마주친 것들 이라고 하며, 그리고 한편 어쩌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서 나타나거나 혹은 죽은 사람의 음성을 들려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드문 이유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과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10-13).

그건 그렇고, 악령도 마귀에 가르침, 죽은 사람이 사실 살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전파하기 위해 악령이 죽은 사람을 가장할 수 있고 실재로 그렇게 합니다. 악령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소리 혹은 움직이는 것, 차거나 혹은 뜨거운 즉석들, 혹은 “haunting-유령으로 출몰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다른 확실한 나타남의 “귀신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엔 죽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에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욥기 4:15 와 사무엘 상 28:13-19 (엔돌에 있는 medium-신접한 여인[무당]에게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며, 그를 흉내 낸 악령입니다. 무당이 경건한 사람을 죽음에서 불러 올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산사람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악령을 “사무엘” 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것이 사무엘의 흉내를 매우 잘 냈기 때문입니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 ghosts-유령[귀신] 혹은 apparition-유령을 보았는데 2009 년도에 pew Research Center-피우 면밀한 조사실 측량에 18% 미국 사람들이 귀신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2013 년도에 Harris poll- 헤얼이의 투표에 42% 미국 사람들이 귀신을 믿으며, 그리고 세계에의 다른 나라들 사람들에 수는 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비록 어떤 보기들은 합법으로 인정받지 안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보고 싶어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할 수 있는 증거를 합니다. Demons-악령들에게 있는 하나에 agenda-의사일정은 죽음이 참으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귀신 혹은 유령으로,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믿게 합니다. 귀신을 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신접한 경험한 것들이 사람들로 인생이 죽은 후에도 어떤 형체로 살고 있다고 믿게 하는 이유에 큰 역할을 합니다.

### **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이유—죽었다 살아난 경험**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나 혹은 영은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죽은 것” 이거나 혹은 죽을 뻔 한 사람들이 본 것들을 죽은 후 삶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죽음에 가까웠다가 살아난 자들이 본 것들은 하나님, demons-악령들, 혹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비록 “near death-죽음에 가까운” 경험이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 영광스런 생활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래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그리고 요한, 이분들은 그 중에 몇 분만 뽑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비상한 정보 혹은 환상으로 미래 생활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럼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near death experiences-죽음에 가까웠던 경험들”에 미래의 생활의 환상을 보여 줌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죽기를 두려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 이 소망에 대한 것들로 용기를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그들이 죽은 후 바로 이 미래에 있을 줄로 짐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은 그렇다고 약속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요한에게 미래에 대하여 보여준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그에게 매우 실제였으나,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죽을 때 바로 경험 하지 않았으며, 요한이 죽었고 그가 본 것들이 지금도 미래에 있습니다.

“Near death-죽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본 경험이 악령이 보여준 것이라는 것에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악령이 사람들에게 환각과 환상을 줄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이치에 맞는 것은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 agenda-의사일정이 대개 사람들이 죽으면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급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agenda-의사일정들의 한 부분은 하나님이 잔인하게끔 보이게 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혹은 그를 무서워 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무시해 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더 겁나게 하는 지옥을 보면 사랑인 하나님의 성품과 확실히 반대입니다. 성경에 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Gehenna-힌놈 골짜기 불 못에 던져서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이지, 그 속에서 여러 층으로 고통받는 영원한 고문소가 아닙니다.

아직도 “near death-죽음에 가까웠던” 경험들에 대한 한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모두가 “꿈이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잠들기 바로 직전이거나 혹은 잠에서 깨어나기 바로 직전에, 시간과 마음이 혼합한 생각들과 꿈들, 그리고 생각의-이미지가 사실 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을 만한 아이디어들이 종교, 혹은 영화, 책,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러한 것들이 죽을 무렵에 혹은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마음 걸로 튀어나와 보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활동한 것들을 썰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몸이 생산하는 전기, 활동하는 뇌의 wave-웨이브, 등등을 썰 수 있습니다만, 어떤 과학자이라도 그 기구가 사람이 언제 완전히 죽었다는— 정확한 시간을 썰 만하게 예민하지 못한다고 말 합니다. 그럼으로, “near death-죽음에 가까웠던” 경험에

대한 셋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그 마음에 상상한 것들이 실제인지 아니면 꾸며낸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모는 성경에서 누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다음 세상이 어떠 하다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엔 사람이 죽은 지 몇 시간 아니 몇일 된 수넴 여인의 아들 (열왕기하 4:35), 나인에 청년 (누가복음 7:15), 회당장의 딸 (마가복음 5:42), 혹은 죽은 지 4 일된 나사로 (요한복음 11:39, 44) 이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죽은 후에 경험한 무엇이든지 좋고 나쁨 것을 보았을 것 같으면, 분명히 그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는 것 그 자체 이것이 성경적 증거인, 죽은 후에는 아무 일이 없는—생각이나 혹은 경험이 없는—삶에 결석입니다 (전도사 9:10).

### **성경을 신뢰하게요**

성경에 사람들의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이 꼭 찻는데, 이브 같은 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이 느낀 것을 더 신뢰하였으므로 비참한 결과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언제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죽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으며, 특히 확실한 마귀의 agenda-의사 일정이 사람들이 죽으면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몸만 죽는 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경험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near-death-죽음에 가까웠던 경험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 부록에 기록되지 않은 구절들**

성경에서 죽으면 죽어 있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에 매우 중요 구절들을 이 부록에 다 내놓지 안 했습니다. 좀더 알고 싶으시면 REV. 성경 설명서에서 구절 별로 연합해 놓았습니다.

[“Hell-지옥” 과 “hades-음부”에 대한 번역을 알고 싶으면, REV. 성경 요한계시록 20:13 설명서를 보세요. 불 못에 던져 annihilated-전멸시키는 것과 영원히 타는 것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REV. 성경 부록 4: “불 못에 던져 annihilation-전멸”을 보세요. Soul-혼이 immortal-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ghost-귀신”이 사람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에 더 알고 싶으면 REV. 성

경 부록 16: Usages of ‘Soul’”를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REV. 성경 부록 15: “Usages of ‘Spirit’”을 보세요. Necromancy- 죽은 자와 교령으로 미래를 점치는 점, 그리고 어쩌서 이것이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REV. 성경 신명기 18:10 과 18:11 설명서를 보세요. 사람에게 죽음이 진짜로 죽었고 부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알고 싶으면, REV. 성경 고린도전서 15:20 설명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으면, REV. 성경 마태복음 27:50 설명서를 보세요.]

### **Selected Bibliography-선택한 서적 해제**

- Burch, Helaine. *Asleep in Christ*. New Berlin, WI: Bible Search Publications 1999.
- Buzzard, Anthony. *What Happens When We Die?* Restoration Fellowship, 2002.
- Date, Christopher; Stump, Gregory; and Anderson, Joshua; Editors. *Rethinking Hell*. Eugene OR: Cascade Books, 2014.
- Froom, LeRoy Edwin. *The Conditionalist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E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Vols. 1 and 2, 1966.
- Graeser, Mark; Lynn, John; and Schoenheit, John. *Is There Death After Life?* Indianapolis, IN: Christian Educational Services, 1993.
- Hatch, Sidney. *Daring to Differ: Adventures in Conditional Immortality*. Sherwood OR: Brief Bible Studies, 1991.
- Prestidge, Warren. *Life, Death, and Destiny*. Auckland, New Zealand: Silverdale Printing Services, 1998